

全都市 勤勞者 家計의 消費構造 變動에 對한 研究

—1970년부터 1978년까지를 中心으로—

A Study on The Consumption Pattern of Urban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 in Korea from 1970 to 1978

全南大學校 師範大學 家政教育科

助 教 授 金 順 玉

助 授 申 洋 植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Soon Ok Kim

Teaching Assistant Hyo Shik Shin

<目 次>

I. 序 論

II. 資料 및 研究方法

III. 消費構造의 分析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 desirable way to stability and improvement of household economy by studying the changes of consumption level and consumption pattern of urban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during the years from 1970 to 1978.

For this study,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Published by the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has been used as basic material, and the methods of analysis used here are the time series analysis.

We have gained the results as follows:

1) From 1970 to 1978, the total income level increased at the rate of 416.2% in nominal price, but only 74.4% in real price, while the total expenditure level showed 338.5% increase in nominal price, but its real increase proved only 418.2% in consideration of inflation. APC decreased from 95.1% (in 1970) to 80.7% (in 1978).

2) As for the expenditure pattern for the above mentioned nine years, the rate of food expenditure increased until 1975 under the price influence, but it trended to decrease thereafter on. The rate of housing expenditure showed a gradual increase, while that of fuel and light expenditure was on the decrease. The rate of clothing expenditure had been on the decrease until 1974 but it began to increase gradually thereafter on. The trend of miscellaneous expenditures was irregularly up and down, educational expenses being the first rank among them. Non-living expenditure had been constant until 1974 but it decreased a

little after that.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consumption level of the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 in all cities from 1970 to 1978 was not practically improved because of rise in prices, nor was the Engel's coefficient and the rate of miscellaneous expenditure changed distinctively. However, as the successive decrease of APC suggests the possibility of economic development, we must try to put stress on economy in consumption and on encouraging. This will help run our household economy in safety and stability.

I. 序 論

家計는 資本主義 經濟社會에서 勞動力, 土地, 資本을 提供하여 分配받은 所得을 欲望充足의 原則에 따라 合理的으로 消費하며 同時に 이것을 可能하게 하는 貨幣所得의 源泉인 勞動力을 再生産한다는 意味와 나아가서 國家的 次元에서는 國民經濟에 必要한 資本을 蓄積한다는 重要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 즉 家計의 消費는 消費 그 自體로서도 重要하며, 勞動力의 再生産이나 資本蓄積이라는 面에 있어서도 重要한 것이다.

그런데 家計의 消費는 家計所得과의 사이에서 函數關係를 形成하며, 消費의 多少는 所得의 變動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一定한 法則을 이루면서 消費支出의 構成內容에도 變化를 일으킨다. 所得의 變動에 따라 일어나는 消費支出의 變化에 關한 法則으로는 “Engel의 法則”과 “Schwabe의 法則” 등이 있으며, 이들은 近代消費理論의 主要한 根幹을 이룰만큼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다¹⁾.

經濟가 成長하고 發展하는 過程에 있어서는 所得의 增大뿐만 아니라 大資本에 依한 새로운 商品, 特히 家庭用 電氣用品이나 「인스턴트」 食品, 其他 即席消耗品 등이 開發되고 割賦制의 實施, 「매스미디어」를 통한 廣告에 의하여 組織的인 마켓팅을 展開함으로써 耐久消費財가 보급되고, 消費의 平準化 등, 소위 展示效果(Demonstration Effect)와 함께 大衆의 소비습관이 급변하여 가는 것이 一般의이라 하겠다²⁾.

우리 나라는 4次に 걸친 經濟開發計劃을 樹立하여 高度의 經濟成長을 持續하고 있다. 1人當 國民所得水準으로 보면, 1961年 95\$에 不過했던 것

이, 1970년에 223.3\$로 1978년에는 1,279\$로 비약적인 向上을 보였으며³⁾, 이에 따라 國民의 消費水準도 變動되고 있다.

이러한 高度의 經濟成長過程에서 家計의 消費支出의 水準이 얼마나 向上하였으며, 構造의 面에서는 어떠한 變動을 하고 있는가에 對하여 檢討해 보는 것은 經濟의 成長速度를 判斷하는 또 하나의 指標가 될 뿐만 아니라 家計의 安定과 向上을 爲하여 重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本 研究의 目的은 經濟成長에 따른 家計所得의 增加趨勢를 考察하고, 이에 副應한 家計消費構造의 變動 및 向上實態를 分析하는데 있다. 本 研究의 結果는 앞으로의 趨勢를 豫見할 수 있는 資料로 提示되어 家計의 安定과 向上을 圖謀함으로써 그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II. 資料 및 研究方法

本 論文에서는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에서 調査한 都市家計調査資料⁴⁾를 利用하였다. 이 資料는 1963年 이래 每年 全國의 全都市에 居住하고 있는 家口를 母集團으로 抽出한 1800家口~4000家口の 標本家口에 對하여 所得 및 費目別 消費支出 등을 面接 또는 被調査者의 日日記帳方式으로 調査集計된 것이다. 家計調査 자체가 힘들고 複雜한 작업이기 때문에 正確하고 信憑性있는 統計數字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건제해 둔다. 이 資料는 比較的 잘 整備되어 있는 것으로 評價되는데 情報蒐集 過程上 偏差를 없애기 위하여 最高所得層家計와 最低所得層家計를 標本對象에서 제외시킨 제한점이 있다.

이 資料를 통해서 1970년부터 1978년까지의 全

<Table 1> The Fluctuation of Monthly Income level and Consumption level per Household by Year

Year	Persons per Household	Disposable Income(Y)			Living Expenditures(C)			Living Expenditures per Person			Balance between Income and Expenditures(%)
		Amount (Won)	Rate of Increase Compared with Year before(%)		Amount (Won)	Rate of Increase Compared with Year before(%)		Amount (Won)	Rate of Increase Compared with Year before(%)		
			nominal	real		nominal	real		nominal	real	
1970	5.34	29,760	—	—	28,290	—	—	5,298	—	—	4.9
1971	5.28	35,370	18.9	4.8	32,520	15.0	1.3	6,159	16.3	2.5	8.1
1972	5.27	40,710	15.1	3.1	36,370	11.8	0.2	6,901	12.0	0.3	10.7
1973	5.25	43,160	6.0	2.7	38,400	5.6	2.3	7,314	6.0	2.7	11.0
1974	5.21	52,300	21.2	-2.5	47,100	22.7	-1.3	9,040	23.6	-0.6	9.9
1975	5.15	69,020	32.0	5.3	62,960	33.7	6.7	12,225	35.2	7.9	8.8
1976	5.05	91,610	32.7	15.1	78,860	25.3	8.6	15,616	27.7	10.8	13.9
1977	4.76	112,330	22.6	11.3	93,230	18.2	7.3	19,586	25.4	13.9	17.0
1978	4.68	153,630	36.8	19.5	124,050	13.1	16.3	26,506	35.3	18.3	19.3
average			22.8	7.2		20.3	5.0		22.3	6.8	11.5

* Source: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1978.

* Rate of increase compared with year before = $\frac{\text{amount of this year} - \text{amount of year before}}{\text{amount of year before}} \times 100$

* Average rate of increase = $\left(\sqrt[8]{\frac{\text{amount of 1978}}{\text{amount of 1970}}} - 1 \right) \times 100$

都市勤勞者家口를 對象으로 하여 8年間の 家計收支 및 消費支出의 費目別 百分比의 差異를 時系列分析⁵⁾ 하였다.

Ⅲ. 消費構造의 分析

1. 家計所得과 消費支出의 變化

우리 나라 全都市勤勞者家口의 1970年에서 1978年까지의 家口當 月平均所得과 消費支出 즉 家計收支의 推移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勤勞者家口의 月平均可處分所得은 1970年の 29,760원에서 1978年 153,630원으로 8年間 123,870원이 增加하여 名目所得에 있어 416.2%의 增加를 보였다. 年度別로는 1978年 最高 增加率을 나타냈으며 8年間 平均 22.8%의 增加率을 보였으나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年平均 14.5%의 增加率을 보여준 消費者 物價指數를 감안한 實賃水準으로는 1970年에서 1978년까지 불과 74.4%

增加하였으며 年平均 7.2%의 增加率을 나타내어 실제적으로는 所得水準의 上昇이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1974年の 名目所得은 前年度에 비해 21.2%의 높은 增加率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實賃所得은 오히려 2.5%의 減少를 보였다. 이는 1973年 겨울의 世界的인 油類波動으로 因하여 24.3%의 이례적으로 높은 物價上昇率을 示顯한 것에 原因이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月平均 消費支出額은 1970年에 28,290원이었던 것이 1978年에 124,050원으로 8年間 支出 增加額은 95,760원으로 所得 增加率보다는 약간 낮은 338.5% 增加하였으며 年平均으로는 20.3%의 增加率을 나타냈다. 實賃金額으로는 8年間 48.2% 增加하였고 年平均으로는 5.0%의 增加率을 보였다.

한편 1人當 消費支出로 換出해 보아도 名目金額

〈Table 2〉 All Cities Consumer price Indexes and Increase rate by Year

Year	All Items	Increase Rate	Food		Housing		Fuel & light		Clothing		Miscellaneous	
			Indexes	Increase Rate	Indexes	Increase Rate	Indexes	Increase Rate	Indexes	Increase Rate	Indexes	Increase Rate
Weight	1,000.0	(%)	458.0	(%)	110.1	(%)	56.0	(%)	92.5	(%)	232.4	(%)
1970	49.1	—	43.0	—	61.8	—	50.1	—	55.1	—	35.5	—
1971	55.7	13.4	51.1	18.8	66.5	7.6	54.2	6.2	58.6	6.4	61.2	10.3
1972	62.2	11.7	57.9	13.3	72.4	8.9	59.7	10.1	63.7	8.7	68.1	11.3
1973	64.2	3.2	59.4	2.6	35.6	4.4	63.1	5.7	71.5	12.2	68.4	0.4
1974	79.8	24.3	75.8	27.8	86.9	14.9	87.0	37.9	87.4	22.2	81.7	19.4
1975	100.0	25.3	100.0	31.9	100.0	15.1	100.0	14.9	100.0	14.4	100.0	22.4
1976	115.3	15.3	117.8	17.8	111.2	11.2	104.2	4.2	113.1	13.1	115.8	15.8
1977	127.0	10.1	131.5	11.6	120.8	8.6	122.1	17.2	125.4	10.9	123.5	6.6
1978	145.3	14.4	153.4	16.7	134.3	11.2	153.7	25.7	140.5	12.0	136.6	10.6
average		14.5		17.2		10.2		15.0		12.4		11.9

* Source;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Annual Report on The Price Survey, 1975, 1978.

$$* \text{Average increase rate} = \left(\sqrt[8]{\frac{\text{Index of 1978}}{\text{Index of 1970}}} \right)$$

으로는 年平均 22.3%를, 消費者物價指數를 고려한 實費金額으로는 年平均 6.8%의 增加率을 보였다.

以上の結果를 비교하면 實質所得의 增加率의 實質消費支出의 增加率과 1人當 實質消費支出의 增加率을 上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全體所得에서 租稅 및 公課金, 支拂利子 등의 非消費支出을 控除한 可處分所得 중에서 消費支出이 차지하는 比率, 즉 平均消費性向은 實質所得의 減少를 보인 1974年을 제외하고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⁶⁾ 이러한 현상은 貯蓄의 可能性을 보여주며, 1978年은 1970年에 비해 4배 정도의 높은 黑字率을 나타내 健全한 家計의 運營을 示唆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所得과 消費支出의 推移는 經濟開發計劃 및 實施에 의한 所得의 增加趨勢에 따라 우리나라 家計가 안정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C) = f(Y)$ 의 函數關係를 갖는 所得과 消費의 關係에 있어서 所得水準이 높아감에 따라 消費支出의 絕對額은 增加하나 平均消費性向은 反對로 減少한다는 Keynes J.M.의 消費函數理論⁷⁾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Keynes J.M.의 消費函數理論인 有效需要理論에서는 需要를 增加시켜 投資를 誘發하고 失業의 問題를 解決하여 完全顯備의 달성을 目標로 하므로 先進國의 경우 消費性向의 減退는 經濟를 침체시키나 所得水準이 낮은 後進國에서의 消費水準의 增加는 貯蓄을 阻害하여 經濟發展을 抑制한다고 하였다⁸⁾. 따라서 1970年의 95.1%라는 높은 消費性向이래 1978年 81.7%로 每年 낮아지고 있는 消費性向은 都市勤勞者家計가 inflation에도 불구하고 資本蓄積의 機能으로서의 家計를 合理的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示唆해 주는 바람직한 現象이라 하겠다.

2. 消費支出의 費目別 變化

費目別 消費支出의 金額과 構成比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이 중 構成比의 年度에 따른 變動率을 알아보기 위하여 1970年을 基準으로 圖式化한 結果는 〈Fig. 1〉과 같다.

費目別로 구체적인 消費支出의 추세를 分析考察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Table 3> Composition of Monthly Living Expenditures by Year

	In won(%)						
	Living Expenditures	Food & Beverages	Housing	Fuel & Light	Clothing	Miscellaneous	Non-living Expenditures
1970	28,290(100.0)	11,480(40.6)	5,150(18.2)	1,630(5.8)	2,980(10.5)	7,050(24.9)	2,010(6.6)
1971	32,520(100.0)	13,460(41.4)	5,950(18.3)	1,810(5.5)	3,240(10.0)	8,060(24.8)	2,290(6.6)
1972	36,370(100.0)	15,020(41.3)	5,720(18.5)	1,920(5.2)	3,340(9.2)	9,370(25.8)	2,410(6.2)
1973	38,400(100.0)	16,040(41.8)	7,260(18.9)	1,910(5.0)	3,560(9.2)	9,630(25.1)	2,690(6.5)
1974	47,100(100.0)	20,800(44.0)	8,510(18.1)	2,600(5.5)	3,980(8.4)	11,210(23.8)	1,410(2.9)
1975	62,960(100.0)	27,830(44.2)	10,520(16.7)	3,340(5.3)	5,690(9.0)	15,580(24.8)	2,590(4.0)
1976	78,860(100.0)	33,900(43.0)	13,890(17.6)	3,760(4.8)	7,330(9.3)	19,980(25.3)	4,370(5.3)
1977	93,230(100.0)	38,880(41.7)	18,930(20.3)	4,600(4.9)	9,030(9.7)	21,790(23.4)	4,760(4.9)
1978	124,050(100.0)	49,520(39.9)	26,810(21.6)	6,120(4.9)	12,610(10.2)	28,090(23.4)	6,050(4.7)

* Source: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s Survey, 1970~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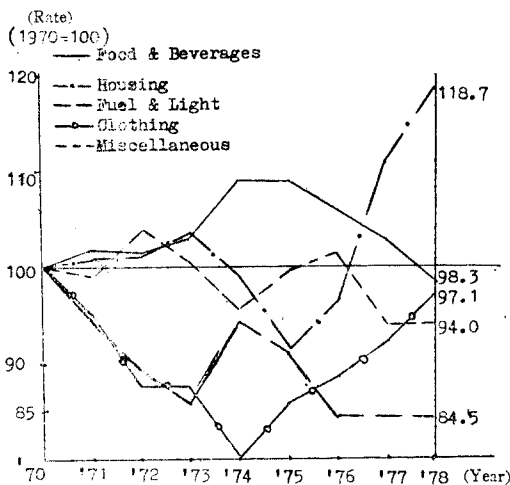


Fig. 1. Trends in Composition of Living Expenditures by Year.

1) 食料品費

1970년부터 1978년까지의 8年 동안 食料品費의 支出은 同期間 中の 年平均 17.2%의 增加率을 보인 食料品費의 物價指數를 고려한 實質水準으로는 20.9%가 向上하였다⁹⁾.

<Table 3>에서 보던 總支出에 對한 食料品費의 比率로는 1970年의 40.6%에서 1978年의 39.9%로 약간 減少하였다. 1974年의 食料品費 比率의 上昇은 實質所得의 減少에 基因하며 1975年은 31.9%

라는 高率의 物價昂騰의 影響으로 解析된다.

所得의 增大에 따른 Engel 계수의 감소가 바람직한 現象이겠으나 勤勞者家計는 계속적인 所得의 增加에도 불구하고 중반기에 經濟不慌으로 인한 inflation의 影響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6年以後의 漸減現象은 得增大에 따른 것으로 볼 때 Engel 法則에 符合되고 있다.

食料品費의 內容을 細目別로 살펴보면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食料品費 中 穀物이 차지하는 比率는 1970年의 44.1%에서 1978年의 33.6%로 7.5% 減少하였으며 食料品費의 質的인 面을 고려함에 있어 主食에 不足된 營業素로 補充하므로 豊富한 攝取를 要求하는 副食物은 反對로 漸增하는 傾向을 보여 勤勞者家口의 食生活構造가 改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와 比較하면 1978年의 日本 勤勞者家口의 總 消費支出에 對한 食料品費의 比率는 28.9%이고 이 중 主食은 14.2%를 차지하여 우리 나라의 比率과는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¹⁰⁾.

특히 우리 나라 國民에게 가장 많이 缺乏되고 있는 動物性 蛋白質과 脂肪의 供給源인 肉魚介類와 乳卵이 8年間 各各 0.3%와 1.3% 밖에 增加하지 않았으며, 調味料 역시 2.2% 增加하였다. 이에 반해 채소, 과실은 1.2% 減少를 보였다. 食品工業의 發展으로 加工食品의 消費가 1960年代 다소 增加한 듯 하였으나 1970年의 3.6%에서 1978年

〈Table 4〉 Composition of Expenditures for Food and Beverages

(In %)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Food & Beverages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ereals)	44.1	43.5	49.3	44.5	45.9	47.0	46.5	42.5	36.6
(Meat & fish)	16.5	16.9	15.2	16.3	14.3	13.6	14.3	14.8	16.9
(Milk & eggs)	3.2	3.5	3.2	3.4	2.9	3.2	3.3	3.8	4.4
(Vegetables & seaweed, Fruits)	17.9	16.3	13.8	16.5	15.5	14.9	14.0	16.6	16.7
(Condiments)	7.8	8.0	7.3	7.0	8.5	8.7	8.5	7.6	10.0
(Processed food)	3.6	3.8	3.7	4.1	3.6	3.3	3.5	3.3	3.2
(Confectioneries & soft drink)	3.4	4.1	3.8	4.0	4.3	4.6	5.0	5.0	5.4
(Alcoholic drink)	1.5	1.7	1.7	1.7	1.9	2.1	2.2	2.7	3.1
(Food prepared outside household)	2.0	2.2	2.0	2.5	3.1	2.0	2.2	3.2	3.4
(Others)						0.6	0.5	0.5	0.3

의 3.2%로 減少하였음은 先進國의 경우와 상반된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11~12)}. 이것은 家計의 合理化를 위해 대체로 價格이 비싼 加工食品의 消費를 抑制하려는 經濟的 要因과 加工食品의 製造 및 販賣上의 問題點으로 인하여 消費를 忌避하는 경향 때문으로 說明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加工食品 生産에 있어서 考慮되어야 할 事實이라고 생각된다.

과자 및 清涼飲料, 알코올飲料, 外食은 各各 2.0%, 1.6%, 1.4%의 增加를 보여 食料品費 中 嗜好品이 차지하는 比率도 상당히 크며 앞으로 그 比率이 더 增加할 것으로 推測된다.

2) 住居費

〈Table 5〉에서 살펴보면 全都市勤勞者家口의 住居費의 比率은 1970년의 18.2%에서 1978년의 21.6%로 점차 增加하는 傾向을 보였다. 이것은 1970年代를 前後하여 급격하게 이루어진 地價上昇과 人口의 都市集中으로 인한 房賃의 騰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住居費를 房賃, 自家評價額, 其他로 細分하고 全都市勤勞者와 서울勤勞者로 나누어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房賃의 경우 全都市와 서울家口 모두 다 점점 增加되었으며 서울家口가 全都市家口보다 약간 낮은 比率로 나타난 것은 首都圈地域의 住宅問題 解

決이 보다 集中的으로 推進되어 셋방人口가 減少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自家評價額은 全都市勤勞者家口의 경우 1970년의 3590원에서 8年동안 약 4.2배가 올랐으며 서울勤勞者家口는 1970년의 4530원에서 약 4.5배가 上昇하여¹³⁾ 서울의 地代나 집값이 지방도시보다 높으며 物價不安으로 인한 不動產 投機붐으로 住宅의 값이 치솟았음을 알 수 있다. 家具什器, 水道料, 修繕費 등을 包含하는 其他 住居費는 全都市와 서울의 경우 점차 增加되었다. 初半期의 一時的인 減少現象은 이들 品目的 價格騰貴로 인한 구입의 抑制로 解析되며, 後半期의 增加現象은 대체로 所得의 增加에 따른 家庭用 電氣用品 및 기타 耐久財의 購入 및 使用의 擴大를 시사해 준다.

3) 光熱費

燈火나 燃料에 使用되는 費用으로서 光熱費의 構成比는 燃料費 價格의 引上으로 8年間 一時的인 增減의 진폭을 보이긴 하였으나 減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Table 3〉.

이것은 Engel의 제3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炊事 暖房용으로 Gas나 石油등의 能率的인 燃料의 使用이 增加되는 추세가 勤勞者家口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多樣한 電氣器具를 使用하게 되었

<Table 5> Composition of Expenditures for Housing by Year

(In %)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All Cities	Housing	18.2	18.3	18.5	18.9	18.1	16.7	17.6	20.3	21.6
	(Rents paid)	1.4	1.7	1.4	1.6	2.1	1.7	1.8	1.9	2.2
	(Rental value of owner-occupied housing)	12.7	13.3	13.9	14.2	12.6	9.6	9.8	12.0	12.2
	(others)	4.1	3.3	3.2	4.0	3.4	5.4	6.2	6.4	7.2
Seoul	Housing	19.3	19.1	20.1	20.1	19.3	17.2	18.1	22.3	23.8
	(Rents paid)	0.9	0.9	0.6	0.7	1.3	1.0	1.0	1.5	1.9
	(Rental value of owner-occupied housing)	13.2	14.3	16.6	17.0	14.1	10.7	11.9	14.7	14.8
	(Others)	5.2	3.9	3.0	2.4	3.8	5.5	5.2	6.1	7.1

으며 서구식의 住宅改善으로 油類로 연료를 대체 화하고 있는 高所得層의 경우 光熱費는 增大되리라 생각된다. 이것은 日本의 勤勞者家口에서 光熱費가 增加되는 추세임을 볼 때 확실해진다.

4) 被服費

被服費는 각자의 趣味, 職業, 地位, 流行 등에 支配되는 바가 크며 所得의 增加에 彈力的인 傾向을 보이는 費目이다.

1972年~1976년까지 제 3차 經濟 開發 計劃이 推進되어 所得의 增大를 가져오긴 했지만 國內外의 으므로 inflation에 시달린 어려운 時期였음을 고려할 때 必須的인 費目に 우선적인 支出을 해야 하므로 被服費의 支出比率은 점차 감소되었다고 思料된다<Table 3>.

1973年 下半期부터 밀어닥친 국제적 資源難, 油類波動으로 化纖織物의 價格急騰이 있어 1974年 被服費의 支出이 크게 抑制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1974年 以後 다시 回復되어 增加趨勢를 보여 주었다.

앞으로의 被服費 支出比率의 趨勢는 纖維工業의 發展으로 被服費의 價格이 低下되기도 하겠지만 生活水準이 높아지면 이제까지 生活必須費로써 支出되었던 것이 文化生活費의 要素의 強化와 더불어 사치성 소비재의 需要增加로 점차 增加되리라 고 생각된다.

5) 雜 費

Engel 法則에 따르면 雜費의 支出比率은 同一條

件下에서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增加하게 되며, 雜費 支出比率의 크기는 生活水準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尺度가 된다고 하였다¹⁵⁾.

生活의 여유가 생기기에 따라 雜費의 內容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大別하면 醫療費, 交通費와 같은 必須的인 費目과 美容, 娛樂 등과 같은 人間의 二次的인 欲望充足에 관련된 費目으로 나눌 수 있다.

本 研究에서 利用한 「都市家計年報」에서 分類하는 雜費의 內容은 醫療費, 美容衛生費, 教育費, 教養娛樂費, 交通通信費, 담배, 其他 등을 包含하고 있다.

<Table 3>에서 雜費의 支出은 1970年의 7050원에서 1978年의 28,990원으로 8年동안에 名目上 311.2%, 實質로는 67% 增加하였으며 年平均 6.6%의 實質增加率을 보여總 消費支出의 實質增加率에 비해 1.6%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支出比率은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25% 前後에서 增減의 起伏을 보이고 있으나 後半期에는 오히려 약간 減少하는 傾向을 보여 주었다. 後半期의 減少를 除外하면 대체로 必須的인 費目인 食料品費의 增減의 움직임과 對照를 보여 주어 食料品費와 雜費가 차지하는 比重은 相對的인 示唆해 주었다.

細目別로 나누어 雜費의 構造變化를 <Table 6>에 依하여 알아보면, 醫療費는 減少되는 傾向을 보이다가 1975년에 크게 增加하여 그 후 계속 유지되었다. 醫療費의 比重이 커졌음은 健康의 重要性認識을 意味하는 한편, 家計의 立場에서는 家計

〈Table 6〉 Composition of Expenditures for Miscellaneous by Year

(In %)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Miscellaneous	24.9	24.8	25.8	25.1	23.8	24.7	25.3	23.4	23.4
(Medical care)	3.1	2.7	2.8	2.6	2.6	4.1	4.6	4.4	4.7
(Personal care)	4.0	4.3	4.0	4.0	4.0	2.6	2.3	2.0	2.0
(Educational care)	5.7	6.1	7.6	7.8	6.2	6.0	6.2	5.8	5.1
(Reading & recreation)	2.0	1.6	1.5	1.5	1.2	1.6	1.4	1.5	1.6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	4.7	4.2	4.5	4.3	4.4	4.3	4.0	4.5	4.4
(Tabacco)	3.3	3.5	3.4	3.1	3.7	1.9	1.7	1.8	2.5
(Others)	2.1	2.3	2.0	1.8	1.7	4.2	5.1	3.4	4.1

의 運營을 壓迫하는 要因을 감안할 때 醫療保險 制度의 확충으로 負擔을 더욱 덜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美容衛生費는 1975年을 前後로 醫療費와 反對現象을 나타내었다. 即 前半期에 비해 後半期에는 減少現象을 보였다.

다음으로 教育費는 1973년까지는 增加現象을, 1974年 以後부터는 減少의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는 入試制度의 改善으로 과외수업비 등의 私的 教育費中 選擇的 教育費의 負擔이 크게 경감된데 연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勤勞者家計의 雜費 中에서 教育費가 차지하는 比率이 가장 높다는 事實은 社會競爭의 격화에 따른 不安定한 對應形 態로서 지나친 教育熱이 發生함을 말해 주고 있다. 教育費로 인한 家計의 負擔을 줄이기 위해서는 教育稅를 新設하여 國家的 次元에서 해결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技術의 진보로 自由時間이 많아져 여가의 선용에 큰 比重을 두는 傾向이지만 教養娛樂費는 8年間 物價上昇의 압박이 컸던 만큼 거의 一定한 水準을 나타내었다. 交通通信費 역시 거의 一定한 水準을 보였는데 比較的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으며 必須的인 費目을 考慮할 때 低所得層 일수록 그 負擔이 크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담배를 보면 1970年에서 1974년까지 3% 以上の 높은 比率을 차지했던 것이 1975년부터 크게 減少하여 바람직한 現象이라 하겠다.

6) 非消費支出

非消費支出이란 租稅 및 公課金, 支拂利子 등의 非消費支出로서 公共을 위하여 支出되는 費用일체를 말한다. 1970年에서 1973년까지 一定한 水準을 보이다가 1974年 2.9%의 낮은 比率로 떨어져 다시 增加되긴 하였지만 初半보다 낮은 比率을 나타냈다<Table 3>.

經濟의 發達は 財政規模의 확대를 기반으로 하여 政府가 앞으로도 계속적인 經濟計劃을 推進함에 있어 國家的 財政規模가 더욱 增加되리라고 기대할 때 이것은 家計에서 租稅의 比重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開發途上에 있는 우리나라는 經濟成長이 주안점이므로 貯蓄能力을 높이고 個人 消費抑制을 위하여 財政의 確保를 間接稅에 依存하려는 租稅政策의 전환에 의한 減少로 說明될 수 있다¹⁹⁾.

I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은 우리 나라의 高度經濟成長過程에 있어서 都市勤勞者家口의 消費水準의 變化實態와 構造的變動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家庭經濟의 安定과 向上의 方向을 模索할 수 있는 資料를 제공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였다.

이러한 目的을 爲하여 1970년부터 1978년까지의 全都市勤勞者家口를 對象으로 하여 所得本準의 增加와 5大費目別로 본 消費構造를 時系列分析함으로써 所得의 增加에 따른 消費水準의 向上과 變動

의 推移를 살펴보았다.

分析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全都市勤勞者家口는 1970년부터 1978년까지 8年間 所得總額에 있어 名目上 416.2% 增加하였으나, 實質水準으로는 불과 74.4% 增加하였고, 消費支出總額은 名目上 338.5%의 增加를 나타냈지만, 物價上昇을 감안한 實質水準으로는 48.2% 增加하였으며, 平均消費性向은 1970년의 95.1%에서 1978년에 80.7%로 떨어져 貯蓄의 可能性을 보여주었다.

2) 8年間の 消費構造를 分析한 結果

① 食料品費의 支出比率은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며 物價의 影響으로 1975년까지 增加하다가 그以後 약간 減少하는 傾向이며, 食料品費 중 穀物이 차지하는 比率 역시 減少하고 있다.

② 住居費의 支出比率은 人口의 都市集中과 地價의 上昇으로 점차 增加하였다.

③ 光熱費의 支出比率은 減少의 傾向을 보였다.

④ 被服費의 支出比率은 1974년까지 減少하다가 그 後 점차 增加를 보였다.

⑤ 雜費의 支出比率은 食料品費 다음의 比重으로 不規則인 增減의 傾向이다가 약간 減少하였으며 雜費중 教育費의 比重이 가장 크다.

⑥ 非消費支出은 1974년까지 거의 一定하며 그 後 약간 減少하였다.

以上の 結果에서 1970年代 우리 나라 全都市勤勞者家口는 消費水準이 向上되고 있으나 物價의 上昇으로 實質的인 向上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Engel 계수나 雜費의 比率에 있어서도 큰 變化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平均消費性向이 계속 낮아져 發展의 餘地를 보여주므로, 앞으로 家計의 健全한 運營을 爲해서는 展示效果的인 消費를 抑制하고 貯蓄에 積極的인 努力을 기울이는 方向을 模索해야 할 것이며 社會的으로는 物價의 安定이 要求된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1. 南惠祐外, 經濟學大辭典, 博英社, 1965, p.23.
2. 田村正紀, 消費者行動分析, 白桃書房, 1972, pp.4~7: Quoted in 李允鍾, 「우리나라 消費構造變動에 관한 연구」, 중대논문집, Vol.21, 1977, p.385.
3.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9, p.7.
4.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70~1978.
5. 時系列 分析; 어떤 변수의 變化率과 方向을 時間에 따라서 測定함으로써 變化의 樣相을 分析하고 未來의 傾向을 豫測하려는 分析方法
6. $APC = \frac{C}{Y}$ 이며 1970년에는 95.1이며 71年 91.9, 72年 89.3, 73年 89, 74年 90.1, 75年 91.2, 76年 86.1, 77年 88, 78年 80.7이었다.
7.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co., 1970, pp.103~104.
8. 南惠祐外, *op. cit.*, pp.860~861.
9. (Table 2)에 의하여 실질금액을 환산하였으며

$$\text{增加率} = \frac{1978\text{年 實質金額} - 1970\text{年 實質金額}}{1970\text{年 實質金額}} \times 100\text{이다.}$$
10. 日本 總理府 統計局, 日本統計月報, 1979. 6, p.75.
11. 日本都市勤勞者の 食料品費 中 加工食品의 比率은 73年 8.6%, 74年 8.4%, 75年 8.6%, 76年 8.8%, 77年 8.9%, 78年 8.9%이었다.
12. Ibid.
13. 經濟企劃院, *op. cit.*, 1978, pp.45~53, 65~73.
14. 日本 總理府 統計局, *op. cit.*, p.96.
15. C.C., Zimmerman, Consumption and Standards of Living, D. Van Nostrand Co. Inc., 1936, p.53.
16. 崔成玉, 玉化榮, 財政學, 進明文化社, 1976., pp.212~213.